

The Effect of Free-Semester Satisfaction on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Kim, Soyoung (Korea National Sports University, Professor)

Ra, Jongmin¹⁾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ree-semester system on career maturity after controlling for self-concept, academic motivation, parent-child relation, school adjustment, via an Institute of Education's G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7 years (first grade of high school students, 2018). The current study used responses from the 4,815 out of 6,813 students who had experience of the free-semester system.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ore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 free-semester system than were neutral or dissatisfied. Second, the study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f self-concept, academic motivation, parent-child relation, school adjustment, and free-semester system on career maturity. In parallel with these results, students who were satisfied with the free-semester system had higher degrees of career maturity than those who were neutral. However,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 free-semester system had higher degrees of career maturity than those who were satisfied with the free-semester system. The results could help reduce the gap that already exists between students' attitudes, thoughts, and experience and the ultimate purpose of the free-semester system.

Key words : Career maturity, free-semester system, Institute of Education's G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1) Corresponding Author: Ra, Jongmin, Professor, Kookmin University,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 E-mail: rems2002@gmail.com

자유학기 만족도가 청소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김소영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나종민¹⁾ (국민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진로성숙에 대한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경기교육종단연구 7차년도(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유학기 만족도의 진로성숙에 대한 영향력은 학생들의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분석되었다. 경기교육종단연구 7차년도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총 6,813명이었으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815명으로 나타나 이 학생의 자료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에 ‘만족’ 하는 학생들은 자유학기에 중도(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들과 자유학기를 ‘불만족’ 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 1학년에 실시하는 자유학기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생의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유학기에 대해 중도(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이 자유학기에 대해 ‘만족’ 하는 학생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진로성숙도를 보이고 있고, 자유학기에 대해 ‘불만족’ 하는 학생들은 자유학기에 대해 ‘만족’ 하는 학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간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진로성숙, 자유학기 만족도, 경기교육종단연구

1) 교신저자: 나종민, 교수, (02707)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 E-mail: rems2002@gmail.com
논문투고일자: 2020. 2. 17 / 심사일자: 2020. 2. 18 / 게재확정일자: 2020. 3. 11

I. 서론

청소년기는 Super(1990)의 진로발달 단계, 성장기(출생~13세), 탐색기(14~24세), 확립기(25~45세), 유지기(45~65세), 쇠퇴기(65세 이상) 중 탐색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직업을 분명히 하고,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한 분야를 향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진로성숙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는 자신의 내면적 욕구에서 비롯한 막연한 진로의식에서 탈피하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경험해야 한다. 즉, 청소년 시기의 진로탐색 및 경험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에서 청소년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Jhon, Lim, & Yi,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구분하여 학생의 진로 탐색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도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자유학기제 목적은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Ministry of Education, 2015) 하는 것이다. 중학교 시기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흥미, 가치관, 기회 등을 고려하여 미래의 직업 세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어(Kim, Nam, & Kang, 2015),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진로성숙 정도에 주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

Kim et al.(2015)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성과는 진로성숙으로 나타난다. 자유학기제의 궁극적 성과가 진로성숙임을 고려할 때 목적하는 성과가 현장에서 나타나는가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Kim, Y. Y., & Kim, J. D.(2016), Cho et al.(2018), Kim, Choi, & Shin(2016) 등은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 효과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 효과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전국적으로 3년 동안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성과는 양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교육중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성과를 진로성숙도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자유학기 만

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2) 학생의 자아개념(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동기(외적 조절동기, 부과된조절동기, 확인된조절동기, 내재적조절동기, 무동기), 부모자녀관계(양육-감독, 양육-합리적설명, 애착-신뢰, 애착-소외), 학교적응(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통제 후 자유학기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성숙도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은 Ginzberg, Ginsburg, Axelrad, & Herma(1951)등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나 가장 포괄적인 진로발달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Super(1953, 1969, 1990)이다 (Kim et al., 2010; Lee, 2003). Super(1953)는 진로발달이론을 ‘직업발달이론(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논문에서 처음 소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진로발달이론의 기초를 구성하는 10가지 명제를 제안하였고, 1957년에 2개, 1990년에 2개를 추가하여 14개 명제로 확장하였다. 이 명제들 중에서 그는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의 집합체로서 이전 단계와 하위 단계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생애 단계를 통한 진로발달은 능력과 흥미를 성숙시킴으로써, 현실검증과 자아개념의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지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Super(1969)는 진로성숙 정도를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하는 위치’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진로성숙도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Crities(1978)는 진로성숙도를 ‘진로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의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Fouad(1988)는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자신의 연령 수준에서 주어지는 진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도’라고 하였다. 국내 학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Kim, Lim, & Han(2011, p. 28)은 진로성숙도란 “개인이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해가며 결정하는 정도” 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는 개인의 발달과 함께 발달하는 개념으로 각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며 결정, 행동할 수 있는 정도로 요약된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진로성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Super(1969)는 진로성숙의 하위요인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으로 구성하였다(Kim et al., 2010). Crities(1978)는 진로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성숙 척도를 제안

하였다(Jhon et al., 2016). Kim & Kim(1989)은 진로성숙도를 결정성, 관여성, 독립성, 성향, 타협성의 태도척도와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선정, 계획,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인화하였다. 이 외에도 Im & Kim(2011)은 진로성숙도를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Jhon et al.(2016)은 진로성숙 정도를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흥미, 목표 전공에 대한 관심, 관련 정보 습득 노력, 결정의 주체성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로 구성된 진로성숙도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2.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특성, 가정배경, 학교요인 세 측면에서 또는 학생수준 특성, 학교수준 특성 두 측면에서 논의된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세 측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연령, 성별, 내적동기,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교우관계 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연령(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 정도로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Park, 2007; Song, 2011). 성별에 관련해서는 여학생의 진로성숙 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연구가 많지만(Cha, Kim, Lea, & Kim, 2007; Jhon et al., 2016; Park & Seong, 2008), 남학생이 여학생의 진로성숙 정도 보다 높다는 연구(Kim et al., 2016),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과의 관계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보고된다. 학업성취도가 진로성숙도와 정적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Choi, 2012), 학업성취도가 진로성숙도와 부적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Choi, 2007; Park, 2007)와 학업성취도가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Hwang, 200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자아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Oh, 2012), 대인관계지능(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흥미)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Kim et al., 2015), 교우관계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Jhon et al., 2016; Oh & Nam, 2014)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정도는 진로성숙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Jeon & Chung, 2018).

가정배경 측면에서는 부모학력, 가구소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관계, 부모와의 대화, 부모애착 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부모학력, 가구소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들 변인의 자녀 진로성숙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지만(Jin, 2011), 유의한 영향이 없음이 보고되기도 한다(Hwang, 2007; Jhon et al., 2016). 반면, 부모와

의 안정된 애착이나 대화를 통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의 심리적인 지지 등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Suh, & Lee, 2009).

학교요인에서는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지도 및 진로활동, 학교풍토, 학교분위기, 학교평균 SES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Jhon et al., 2016). 그러나 위계적 선형모형을 통해 개인과 학교 측면으로 구분하여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논문은 학교풍토나 학교분위기 등의 학교효과는 미비하였다. Jhon et al.(2016)에서 다층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분산 중 1.9%, Kim & Yang(2012)은 3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전체분산 중 3.04%, Park & Lee(2010)는 2수준 다층모형을 통해 3.3%가 학교수준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수준의 변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양(98.1%, 96.06%, 96.7)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학생의 진로발달은 개인수준 변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아개념(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동기(외적조절동기, 부과된조절동기, 확인된조절동기, 내재적조절동기, 무동기), 부모자녀관계(양육-감독, 양육-합리적설명, 애착-신뢰, 애착-소외), 학교적응(교우관계, 교사관계)을 진로성숙도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들로 설정하고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 변인들은 자유학기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데 있어 통제변인의 역할을 하였다. 즉, 이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자유학기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되었고(2012. 11. 21), 이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Shin, Hwang, & Kim, 2015). 2013년에 42개 연구학교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전국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후 자유학기제는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었고,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중에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7).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최소 한 학기 이상 운영되며,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으로 나누어 170시간 이상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목적은 토론이나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운영되는 학기에는 교과활동이 교과 수업 시간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나뉜다. 교과 수업 시간은 학생중심의 토론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을 진행하고,

지필고사 대신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으로 구성된다. 진로탐색활동은 학교에서 하는 진로교육을 포함하여 진로학습, 진로상담 및 검사, 진로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주제선택활동은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중장기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예술·체육 활동은 모든 학생이 한 가지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은 자치활동 및 자율적인 활동 기회를 통한 학생중심의 운영을 지향한다(Cho et al., 2018).

자유학기제 관련하여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Shin et al., 2015),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Cho et al., 2018; Kim, 2018; Kim et al., 2016) 등이 있다. Shin et al.(2015)은 자유학기의 교수-학습 변화는 크게 두드러졌으나, 교사들은 평가 기록과 공정한 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학교들은 체험활동 지원환경과 관련하여 인력풀, 체험처 확보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Kim et al.(2016)과 Cho et al.(2018), Kim et al.(2016)은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하였다. Kim et al.(2016)은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은 아직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내재한다고 하였고, Cho et al.(2018)은 진로성숙도에 부모양육태도, 자기주도학습시간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자유학기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낮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2016)은 가정변인과 학교변인을 통제할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대한 효과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참조할 때 자유학기제 운영이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아직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만족정도가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탐색하기 위해 경기교육중단연구 7차년도(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경기교육중단연구 7차년도에 참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총 6,813명 이었으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815명으로 나타나 이 학생의 자료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 분석에 포함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은 2,456명, 전체학생의 51.0%, 여학생은 2,359명, 전체 학생의 49.0%를 차지하였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490명, 72.5%였고,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113명, 23.1%였다. 도시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4,012명, 83.3%였고,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91명, 12.3%였다. 대다수의 학생들은(4,098명, 85.1%) 남녀공학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변인	특성	빈도(%)
성별	남	2,456(51.0)
	여	2,359(49.0)
학교 설립유형	공립	3,490(72.5)
	사립	1113(23.1)
	결측	212(4.4)
학교 도시규모	도시	4,012(83.3)
	읍면소재지	591(12.3)
	결측	212(4.4)
남녀공학 여부	남고	275(5.7)
	여고	230(4.8)
	남녀공학	4,098(85.1)
	결측	212(4.4)
계		4,815(100)

자유학기제에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생 4,815명 중 ‘자유학기 만족도’에 응답하지 않은 23명을 제외한 4,792명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유학기 만족도’에 응답한 4,792명에 대한 응답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분석결과 자유학기에 ‘만족’하는 학생이 2,115명(44.1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자유학기 만족도에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875명(39.10%), 자유학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802명(16.7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자유학기 만족도 분포

만족도	사례 수	(%)
만족한다	2,115	44.10
잘 모르겠다	1,875	39.10
만족하지 않는다	802	16.70

2. 연구변인

한국교육중단연구 7차년도 설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생이 응답한 진로성숙(진로 이해, 진로계획, 진로태도), 자아개념(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습동기(외적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무동기), 부모자녀관계(양육-감독, 양육-합리적 설명, 애착-신뢰, 애착-소외), 학교적응(교우관계, 교사관계), 자유학기 만족 여부에 대한 신뢰도(Cronbach α)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자유학기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였다. <표 3>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직업태도(.47)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unnally, 1978). 그리고 자유학기 만족도 변인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자유학기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술통계에 언급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성가정을 검증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계는 피어슨 적률상관관계(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3> 변수들의 문항 수 및 신뢰도

	변인	문항 수	신뢰도
진로성숙도	진로에 대한 계획성	4	.89
	직업태도	4	.47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4	.88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5	.92
	신체 자아개념	5	.87
학습동기	외적조절동기	4	.87
	부과된 조절동기	4	.87
	확인된 조절동기	4	.90
	내재적 조절동기	4	.93
	무동기	4	.90

부모자녀관계	양육-감독	3	.89
	양육-합리적설명	5	.95
	애착-신뢰	6	.95
	애착-소외	6	.88
학교적응	교우관계	6	.89
	교사관계	6	.93
자유학기 만족도		1	-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변인의 최소점은 1, 최대점은 5였다. 진로성숙도 평균은 3.71로 보통 수준이었다. 학습동기의 평균은(1.79, 2.38, 3.13, 2.72, 2.41) 대체적으로 자아개념,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평균들 보다 낮게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절대값 2보다 다 작게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Lei & Lomax, 2005).

<표 4>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기술통계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성숙도	진로전체	4,815	3.71	0.60	-0.22	0.25
	진로이해	4,815	3.90	0.79	-0.54	0.47
	진로계획	4,815	3.60	0.87	-0.42	0.30
	진로태도	4,815	3.64	0.61	0.21	-0.23
자아개념	자아사회	4,815	4.11	0.73	-0.65	0.43
	자아신체	4,815	3.33	0.88	-0.08	-0.11
학습동기	외적동기	4,815	1.79	0.76	0.79	0.16
	부과동기	4,815	2.38	1.00	0.30	-0.62
	확인동기	4,815	3.13	1.00	-0.30	-0.23
	내재동기	4,815	2.72	1.05	0.13	-0.53
	무동기	4,815	2.41	1.02	0.53	-0.26

부모자녀관계	양육감독	4,815	4.19	0.77	-0.86	0.78
	양육합리	4,815	3.65	0.99	-0.47	-0.19
	애착신뢰	4,815	3.95	0.87	-0.68	0.14
	애착소외	4,815	2.36	0.92	0.38	-0.23
학교적응	친구적응	4,815	4.06	0.66	-0.46	0.40
	교사적응	4,815	3.67	0.87	-0.26	-0.17

2.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 관계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들 간의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에 제시된 분석결과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은 다중공성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는 학습동기의 부과된 조절동기에서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진로에 대한 계획성은 직업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부과된 조절동기,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양육-감독, 양육-합리적 설명, 애착-신뢰, 교육관계, 교사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035 \leq r \leq .610$). 반면 진로에 대한 계획성은 외적 조절동기, 무동기, 애착-소외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0 \leq r \leq -.236$).

<표 5>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① 진로에 대한 계획성	1.00																
② 직업태도	.298**	1.00															
③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610**	.322**	1.00														
④ 사회 자아개념	.218**	.144**	.228**	1.00													
⑤ 신체 자아개념	.220**	.090**	.190**	.474**	1.00												
⑥ 외적 조절동기	-.154**	-.249**	-.149**	-.161**	-.116**	1.00											
⑦ 부과된 조절동기	.035**	-.085**	-.065**	-.041**	-.059**	.339**	1.00										
⑧ 확인된 조절동기	.288**	.225**	.195**	.164**	.212**	-.078**	.239**	1.00									
⑨ 내재적 조절동기	.281**	.184**	.161**	.116**	.246**	-.075**	.209**	.760**	1.00								
⑩ 무동기	-.236**	-.257**	-.174**	-.260**	-.211**	.277**	.034*	-.332**	-.293**	1.00							
⑪ 양육-감독	.236**	.178**	.248**	.215**	.159**	-.195**	-.028	.177**	.149**	-.240**	1.00						
⑫ 양육-합리적 설명	.215**	.110**	.176**	.223**	.248**	-.251**	-.063**	.232**	.230**	-.255**	.487**	1.00					
⑬ 애착-신뢰	.217**	.173**	.197**	.297**	.290**	-.334**	-.075**	.235**	.218**	-.314**	.457**	.754**	1.00				
⑭ 애착-소외	-.130**	-.199**	-.153**	-.275**	-.232**	.333**	.167**	-.193**	-.144**	.361**	-.334**	-.486**	-.580**	1.00			
⑮ 교우관계	.268**	.258**	.326**	.609**	.343**	-.218**	-.041**	.241**	.192**	-.321**	.319**	.306**	.374**	-.308**	1.00		
⑯ 교사관계	.325**	.193**	.309**	.374**	.332**	-.171**	-.034*	.304**	.291**	-.350**	.266**	.334**	.385**	-.288**	.551**	1.00	

** $p < .01$, * $p < .05$

직업태도는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양육-감독, 양육-합리적 설명, 애착-신뢰, 교육관계, 교사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90 \leq r \leq .322$). 반면, 직업태도는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무동기, 애착-소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85 \leq r \leq -.257$).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는 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양육-감독, 양육-합리적 설명, 애착-신뢰, 교우관계, 교사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 \leq r \leq .326$). 반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는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무동기, 애착-소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065 \leq r \leq -.174$).

3. 진로성숙도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 자유학기 만족도 영향

진로성숙도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통제 후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나타나있다. 자유학기 만족도는 자유학기에 만족하는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한 더미변수를 이용하였다. 자유학기 만족 2는 자유학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학생과 자유학기를 만족하는 학생과의 차이를, 자유학기 만족도 3은 자유학기를 만족하지 않는 학생과 자유학기를 만족하는 학생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진로성숙도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과 자유학기 만족도의 설명력은 24.5%($R_{adj}^2 = .245$)로 나타났으며,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성숙도에 대한 예측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hat{Y}_{(\text{진로성숙도})} = & 2.187 + 0.026(\text{신체 자아개념}) - 0.083(\text{외적 조절동기}) - 0.023(\text{부과된 조절동기}) + \\ & 0.083(\text{확인된 조절동기}) + 0.031(\text{내재적 조절동기}) - 0.036(\text{무동기}) + \\ & 0.115(\text{양육-감독}) + 0.130(\text{교우관계}) + 0.097(\text{교사관계}) - \\ & 0.048(\text{자유학기} = \text{잘 모르겠다}) + 0.034(\text{자유 학기} = \text{불만족}) \end{aligned}$$

진로성숙도에 신체 자아개념($b=0.026, p<.05$), 확인된 조절동기($b=0.084, p<.01$), 내재적 조절동기($b=0.031, p<.01$), 양육-감독($b=0.115, p<.01$), 교우관계($b=0.130, p<.01$), 교사관계($b=0.097, p<.01$)와 자유학기에 ‘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적 조절동기($b = -0.083, p < .01$), 부과된 조절동기($b = -0.023, p < .01$), 무동기($b = -0.036, p < .01$)와 자유학기에 ‘불만족’ 하는 학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0.048)은 자유학기에 만족하는 학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낮은 반면 자유학기제에 ‘불만족’ 하는 학생들(0.034)은 자유학기제에 만족하는 학생들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진로성숙도 전체에 대한 설명변인 하위영역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2.187	.092		23.764**
사회 자아개념	0.015	.014	.018	1.063
신체 자아개념	0.026	.010	.038	2.545*
외적 조절동기	-0.083	.011	-.106	-7.261**
부과된 조절동기	-0.023	.009	-.038	-2.650**
확인된 조절동기	0.084	.012	.139	6.944**
내재적 조절동기	0.031	.011	.054	2.746**
무동기	-0.036	.009	-.062	-4.205**
양육-감독	0.115	.012	.147	9.817**
양육-합리적 설명	-0.018	.012	-.030	-1.483
애착-신뢰	-0.002	.015	-.003	-0.151
애착-소외	0.020	.011	.030	1.868
교우관계	0.130	.016	.143	7.925**
교사관계	0.097	.011	.141	8.743**
자유학기 만족 2	-0.048	.017	-.039	-2.888**
자유학기 만족 3	0.034	.022	.021	1.549

** $p < .01$, * $p < .05$

진로성숙도는 진로에 대한 계획성, 직업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3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 진로에 대한 계획성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통제 후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있다.

진로에 대한 계획성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과 자유학기 만족도의 설명력은 18.9%($R_{adj}^2 = .189$)로 나타났으며, <표 7>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성에 대한 예측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at{Y}_{\text{(진로에 대한 계획성)}} = 1.386 + 0.055(\text{사회 자아개념}) + 0.062(\text{신체 자아개념}) - 0.091(\text{외적 조절동기}) + 0.085(\text{확인된 조절동기}) + 0.076(\text{내재적 조절동기}) - 0.050(\text{무동기}) + 0.133(\text{양육-감독}) + 0.074(\text{애착-소외}) + 0.161(\text{교사관계}) - 0.090(\text{자유학기 = 잘 모르겠다}) + 0.013(\text{자유학기 = 불만족})$$

진로에 대한 계획성에 대해 사회 자아개념(b=0.055, p<.01), 신체 자아개념(b=0.062, p<.01), 확인된 조절동기(b=0.085, p<.01), 내재적 조절동기(b=0.076, p<.01), 양육-감독(b=0.152, p<.01), 애착-소외(b=0.074, p<.01), 교사관계(b=0.161, p<.01)와 자유학기에 ‘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절동기(b= -0.091, p<.01), 무동기(b= -0.050, p<.01)와 자유학기에 ‘불만족’ 하는 학생은 진로에 대한 계획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0.090)은 자유학기에 만족하는 학생들보다 진로에 대한 계획성이 더 낮은 반면 자유학기제에 ‘불만족’ 하는 학생들(0.013)은 자유학기제에 만족하는 학생들 보다 진로에 대한 계획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진로에 대한 계획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1.386	.138		10.011**
사회 자아개념	0.055	.021	.046	2.618**
신체 자아개념	0.062	.015	.063	4.070**
외적 조절동기	-0.091	.017	-.080	-5.264**
부과된 조절동기	0.023	.013	.026	1.765
확인된 조절동기	0.085	.018	.097	4.666**
내재적 조절동기	0.076	.017	.091	4.446**
무동기	-0.050	.013	-.058	-3.810**
양육-감독	0.133	.018	.117	7.563**
양육-합리적 설명	0.034	.018	.038	1.851
애착-신뢰	-0.013	.022	-.013	-0.576
애착-소외	0.074	.016	.078	4.644**
교우관계	0.042	.025	.032	1.713
교사관계	0.161	.017	.161	9.684**
자유학기 만족 2	-0.090	.025	-.050	-3.592**
자유학기 만족 3	0.013	.033	.006	0.399

** p<.01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 직업태도에 대해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통제 후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나타나있다. 직업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과 자유학기 만족도를 포함한 모형의 설명력은 15.8%($R_{adj}^2 = .158$)로 나타났으며, <표 8>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태도에 대한 예측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at{Y}_{\text{직업태도}} = 3.322 - 0.113(\text{외적 조절동기}) - 0.043(\text{부과된 조절동기}) + 0.087(\text{확인된 조절동기}) - 0.063(\text{무동기}) + 0.059(\text{양육-감독}) - 0.07(\text{양육-합리적 설명}) - 0.036(\text{애착-소외}) + 0.155(\text{교우관계}) + 0.014(\text{자유학기 = 잘 모르겠다}) + 0.106(\text{자유 학기 = 불만족})$$

<표 8> 직업태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3.322	.100		33.285**
사회 자아개념	-0.028	.015	-.034	-1.871
신체 자아개념	-0.021	.011	-.031	-1.942
외적 조절동기	-0.113	.012	-.141	-9.115**
부과된 조절동기	-0.043	.009	-.070	-4.688**
확인된 조절동기	0.087	.013	.141	6.629**
내재적 조절동기	0.017	.012	.029	1.379
무동기	-0.063	.009	-.103	-6.656**
양육-감독	0.059	.013	.073	4.621**
양육-합리적 설명	-0.070	.013	-.112	-5.317**
애착-신뢰	0.018	.016	.026	1.143
애착-소외	-0.036	.012	-.054	-3.110**
교우관계	0.155	.018	.167	8.736**
교사관계	0.003	.012	.004	0.214
자유학기 만족 2	0.014	.018	.011	0.769
자유학기 만족 3	0.106	.024	.064	4.446**

** $p < .01$

직업태도에 확인된 조절동기($b=0.087, p < .01$), 양육-감독($b=0.059, p < .01$), 교우관계($b=0.155, p < .01$)와 자유학기에 중도(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과 ‘불만족’ 하는 학생들 모두 직업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태도에 외적 조절동기($b= -0.113, p < .01$), 부과된 조절동기($b= -0.043, p < .01$), 무동기($b= -0.063, p < .01$), 양육-합리적 설명($b= -0.070, p < .01$), 애착-소외($b= -0.036, p < .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은 자유학기에 만족하는 학생들(0.014)과 자유학기제에 ‘불만족’ 하는 학생들(0.106)은 자유학기제에 만족하는 학생들 보다 직업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숙도 중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하위영역과 통제 후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9>에 나타나있다. 분석결과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의 설명력은 16.3%($R_{adj}^2 = .163$)로 나타났으며,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에 대한 예측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at{Y}_{\text{(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 1.851 + 0.037(\text{신체 자아개념}) - 0.046(\text{외적 조절동기}) - 0.047(\text{부과된 조절동기}) + 0.080(\text{확인된 조절동기}) + 0.152(\text{양육-감독}) + 0.192(\text{교우관계}) - 0.127(\text{교사관계}) - 0.068(\text{자유학기 = 잘 모르겠다}) - 0.017(\text{자유학기 = 불만족})$$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에 대해 신체 자아개념($b=0.037, p<.01$), 확인된 조절동기($b=0.080, p<.01$), 양육-감독($b=0.152, p<.01$), 교우관계($b=0.192, p<.01$), 교사관계($b=0.127,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적 조절동기($b= -0.046, p<.01$), 부과된 조절동기($b= -0.047, p<.01$), 자유학기에 중도(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과 ‘불만족’ 하는 학생들 모두 직업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학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은 자유학기에 만족하는 학생들(-0.068)과 자유학기제에 ‘불만족’ 하는 학생들(-0.017)은 자유학기제에 만족하는 학생들 보다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β	
상수	1.851	.128		14.508**
사회 자아개념	0.018	.019	.017	0.922
신체 자아개념	0.037	.014	.041	2.607**
외적 조절동기	-0.046	.016	-.044	-2.866**
부과된 조절동기	-0.047	.012	-.060	-4.013**
확인된 조절동기	0.080	.017	.101	4.773**
내재적 조절동기	0.001	.016	.001	0.037
무동기	0.003	.012	.004	0.245

양육-감독	0.152	.016	.148	9.415**
양육-합리적 설명	-0.018	.017	-.022	-1.057
애착-신뢰	-0.012	.020	-.013	-0.595
애착-소외	0.021	.015	.025	1.429
교우관계	0.192	.023	.161	8.452**
교사관계	0.127	.015	.140	8.237**
자유학기 만족 2	-0.068	.023	-.042	-2.952**
자유학기 만족 3	-0.017	.030	.008	-0.560

** $p < .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생의 자아개념(사회 자아개념, 신체 자아개념), 학업동기(외적조절동기, 부과된조절동기, 확인된조절동기, 내재적조절동기, 무동기), 부모자녀관계(양육-감독, 양육-합리적설명, 애착-신뢰, 애착-소외), 학교적응(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진로성숙도에 대한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학교적응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높은 반면, 학습동기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유학기제에서 나타나는 과정 중심적인 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발적 내적동기 보다는 여전히 지식의 암기와 같은 수동적 방법에 익숙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Shin et al., 2015). 따라서 자유학기제 동안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감과 부담감이 공존한다는 Ha, Kim, Cho, & Kim(2018)의 결과처럼,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만족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고려한 평가 체제의 정착화나 학습방법의 다양화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모색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성숙도 전체, 진로에 대한 계획, 직업태도,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신체 자아개념, 사회 자아개념, 확인된 조절동기, 내재적 조절동기, 양육-감독, 교우관계, 교우관계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적 조절동기, 부과된 조절동기, 무동기, 애착-소외 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과된 조절동기와 외적 조절동기는 진로성숙도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자유학기제가 지니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점을 드러난 결과일 수 있다(Ha et al., 2018).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성숙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자 하는 진로 교육에 중점을 둔 자유학기제의 정책

적 일관성과 지속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내재적 학업동기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에 대한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 영향력 통제 후 자유학기 만족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자유학기제를 ‘만족’ 하는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잘 모르겠다’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 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으나 자유학기제에 ‘불만족’ 하는 학생들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성숙의 하위영역 중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에 대한 자기 이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직업태도는 자유학기제에 ‘불만족’ 하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 ‘만족’ 하는 학생들 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 자유학기 만족도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성숙에 대한 자유학기제의 성과적 측면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에 이루어지는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에 대해 실질적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미흡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로에 대한 자기이해, 진로에 대한 계획 및 직업태도에 효과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자유학기제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에 대해 자유학기 만족 영향력을 학생의 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 변인 영향력을 통제한 후 살펴보았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내재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자유학기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연구에 사용하였으나 자유학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유학과 관련된(강사, 체험활동, 프로그램 질적 수준 등)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자아개념, 학습동기, 부모자녀관계, 학교적응)을 고려한 후 자유학기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자유학기를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자유학기에 만족한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를 경험한 후, 다소 시간이 흐른 뒤 과거에 대한 기억에 기반을 둔 결과로 볼 수 있어 보다 신뢰롭게 타당화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특성을 살려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를 경험한 학생들 중 자유학기에 ‘불만족’ 하는 학생들의 진로성숙도가 자유학기를 ‘만족’ 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유학과 관련된 보다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밀한 방법(예, lasso, group lasso, Ridge lasso 등)을 후속연구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Cha, J. E., Kim, A. Y., Lea, E. K., & Kim, B. H. (2007). Gender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trend in career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4), 923-944.
- Choi, S. J. (2007). Latent growth curve model on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SES, school record of adolescent. *Studies on Korean Youth, 18*(3), 31-57.
- Choi, Y. J. (2012). Differences in career education outcomes across types of career education experiences of junior high schooler.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5*(2), 21-41.
- Cho, S. K., Kim, M. J., Park, G. A., Suh, J. E., Lee, B. M., & Jung, D. Y. (2018). Policy effect analysis of free semester program: Focusing on school factor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6*(4), 41-68.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NCME, 4*(2), 1-8.
- Fouad, N. A. (1988). The construct of career mat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1), 49-59.
-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 J., H., Kim, M., H., Cho, Y., A., & Kim, S., H. (2018).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middle-school student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42*, 139-162.
- Hwang, Y. J. (2007). Determinants of career decision and perceived level of career inform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7*(1), 131-158.
- Im, H. J., & Kim, N. O. (2011). The effects of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 activities on their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22*(3), 261-281.
- Jeon, H. J., & Chung, H. W. (201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school and student variables of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9*(3), 213-240.
- Jhon, H. S., Lim, H. J., & Yi, K. Y. (2016).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Seoul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6*(4), 97-124.
- Jin, S. M. (2011). Group comparison study by individual student variables and family background on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 Seoul. *Korean Education Inquiry*, 29(2), 133-156.
- Kim, B. H., Lee, J. K., Yu, H. S., Hwang, M. H., Gong, Y. J., Son, J. H., Kang, H. Y., Kim, J. H., Yu, J. E., Im, E. M., & Son, E. L. (2010). *Career counseling theory-application to Korean clients*. Seoul, Korea: Hakjosa.
- Kim, C. K., & Kim, H. O.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maturity level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8(1), 143-160.
- Kim, D. I., Nam, J. E., & Kang, M. C. (2015). Mediating effect of classroom sense of commun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schoolers' interpersonal intelligence and career matur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8(1), 1-22.
- Kim, H. I., Choi, I. J., & Shin, H. J. (2016). The impact of free learning semester on youth career development: A comparison of two middle schools in Daegu, South Korea.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9(2), 45-64.
- Kim, H. K. (2018). The effect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middle school FL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3), 147-168.
- Kim, H. S., & Yang, S. H. (2012). The effect of high school and students's characteristics on career maturity in Seoul: Using multi-level model.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57-74.
- Kim, W. C., Lim, S. S., & Han, S. C.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in the activities of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and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2(1), 21-39.
- Kim, Y. B., Namgung, J. E., Kim, J. M., Park, K. H., Im, H. J., Kim, N. O., Choi, B. M., Song, S. W., & Lee, Y. J. (2016).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KELS2013) (1): An analysis of educational experiences and achievements of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Y. Y., & Kim, J. D. (2016). Effects and problems of middle school career education under the free semester.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0(6), 313-321.
- Lee, H. Y. (2003). *Counseling for career maturity*. Seoul, Korea: Hakjisa.
- Lei, M., & Lomax, R. G. (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2(1), 1-27.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17). *The plan of middle school's free semester expansio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 Oh, S. Y. (2012).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fficiency on career education experience and career maturit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andidates of general high-school vocational high-school.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5(3), 77-94.
- Oh, J. A., & Nam, B. H. (2014). The study on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related to relational and school adjustment variable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1(2), 185-209.
- Park, M. R., & Lee, J. Y. (2010). Testing the effects of person variables and school education on career maturit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1), 65-88.
- Park, W. S. (2007). The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effect on career maturity for secondar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4), 87-101.
- Park, H. H., & Seong, T. J. (2008).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on career maturity development according to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19(1), 117-142.
- Shin, C. G., Hwang, E. H., & Kim, E. Y. (2015). An analytical study on the operation and actual state of the free-semester program. *Asian Journal of Education*, 16(3), 27-55.
- Song, M. K. (2011). The study on career maturity and decision-making transitions of job-careers of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329-347.
- Suh, J. H., & Lee, J. K. (2009). The influence of parent career behavior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4), 2153-2167.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Super, D. E. (1969).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and process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 2-9.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 space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other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